

##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김형희(남서울대학교 / 겸임교수)

tarjane@hanmail.net

---

### 한글 초록

---

본 연구는 기술혁명의 흐름 속에서 비인격화를 조명하며 새로운 인간상을 지향하는 기독교 인격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계시대의 기술과 인간의 진화적 흐름에 적응하고 중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기독교 인격교육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목적은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으로 제시된 창조적 인간, '호모 크레토스'(Homo Creators)를 지향하는 것이다. 교육 목표는 창조적인 해석과 학제간의 창조적 통합과 탈기계·탈인습 패러다임의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창조적 인간을 양육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탈기계와 탈인습의 특징을 통섭하는 인격 대화이다. 교육 방법은 기술의 시스템적 사고와 인격 대화가 실현되도록 에듀테크(Edu-Tech), AIED(교육 분야의 인공지능)를 활용한다. 또한, 교사와 학습자, 교육 환경과 교육 평가에 대한 구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기술혁명시대 인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새롭게 창조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며, 이것을 지향하는 기독교 인격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기술혁명시대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중시하는 기독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 주제어 》

기술혁명시대, 창조적 인간상, 기독교 인격교육, 삼위일체, 호모 크레토스

---

\* 본 논문은 “기술혁명시대 창조적 인간상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2)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I.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초래하는데 특히 인간상은 핵심적인 문제이다. 리코나(Lickona, 2006, 4-5)는 기술 중심의 서구 사회를 진단하면서 도덕적 풍토가 흐트러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보다 덜 정직하고 이전보다 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한국 사회의 교회와 학교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학생과 가족 구성원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고통받거나 소외되고 있으며, 무의미한 단편 지식을 암기하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를 되풀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달래는 것이다. 특히 숨 막히는 무한 경쟁 속에서 배움과 성장의 열망은 시들어 가고 일탈과 문제 행동이 확산한다는 점이다(차윤경 외, 2019, 6). 하이테크 시대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인간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김정준, 2018),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강화된 교육목회가 필요한 시점이다(김효숙, 2018). 하지만 교회는 이에 대해서 무지, 무관심, 방관 혹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김형희, 2019). 이계학(2001, 39)은 한국 사회가 지식 사회가 될수록, 고학력 사회가 될수록, 기술사회가 될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가 있으며, 교육 자체의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 교육을 반성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계몽 사조에 힘입어 인격 함양을 했던 한국인의 덕성 교육의 전통을 지식 중심,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이계학, 2001, 39-40).

기술혁명시대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기회를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오인탁, 2017). 그런데 이것은 인간다움(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더욱 인간다움(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인격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술혁명시대에 왜 인격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혁명과 인격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신학적인 근거를 검토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탐구하는 동시에 기독교 인격교육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첫째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며, 둘째 기술혁명시대의 비인격의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 미래의 긍정적 인격교육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 II. 기술혁명과 인격교육의 현황

### 1. 인격의 의미

기술혁명시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큰 변화와 영향 때문이며(Schwab, 2016, 12-13), ‘기술혁명’은 ‘기술 패러다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김성동, 2018, 34). 이때 기술혁명시대의 특징은 기술혁명 패러다임으로 표출되는 기계와 인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인격교육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까지 오랜 시간 기술이 축적된 지도를 보여주는 기술 패러다임의 특징은 3가지로 압축되는데 ‘초지능성’(Super-intelligence),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그리고 ‘초융합성’(Super-convergence)이다(이영주, 2021, 225). 기술 패러다임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되며, 더욱더 다양하게 융·복합적으로 결합한다는 사실이다. 기계는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고 인격체처럼 진화하고 추월하려는 관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에 기계가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인격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격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말 사전에서는 “사람의 품격”, “개인의 지

(知), 정(情), 의(意) 및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미로 풀이한다. 현대조선말 사전에서도 인격은 “매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나 자격”으로 정의한다(진교훈 외, 2007, v - vi). 하지만, 인격의 개념에 대해 인식론적으로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인격교육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유석상 외, 2018, 91, 77-94).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신학적 인간학 연구는 인격의 핵심으로 ‘인간적인 것 또는 사람다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진교훈, 2007, 93-94). 인격의 통전적인 의미는 ‘사람다움(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인격’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는 기존에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 차이와 혼용을 방지하고자 ‘사람다움’으로 제시한다.

## 2. 인격교육의 역사와 상황

동양과 서양에서 진행된 인격교육의 역사와 상황은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인격교육의 뿌리와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과제이다. 진교훈(2007, 3-4)에 의하면, 동양의 인격교육은 선진유가(先秦儒家)와 원시유학(原始儒學)의 공맹(孔孟)의 가르침이 전승된 것으로 ‘인간다운 노릇을 하는 법식’으로 정의한다. 이때 인격은 성인(聖人), 현인(賢人), 인자(仁者), 대인(大人), 군자(君子), 성인(成人), 선인(善人), 지자(知者) 등과 같이 주로 ‘도덕군자’(道德君子)로 표현되는 덕행과 관계되어 사용된 것이다(진교훈, 2007, 5-9).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관찰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물이나 대상이나 관념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구체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순간에 수행자로서 나타날 수 있을 뿐이라고 제시한 점이다. 진교훈(2007, 16-17)은 인간성 상실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인간교육과 인성교육 혹은 인격주의교육이 필요하며, 선진유가의 인격론을 공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제시한다. 동양의 인격교육은 도덕교육에 초점이 있지만, 개인의 덕성을 완전무결한 결과물로 보지 않았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반면에 나딩스(Noddings, 2010, 216-217)에 의하면, 서양의 인격교육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며 도덕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과 실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은 상식적이고 성경의 잠언에 나타난 헤브라이즘 전통과 대체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하며 의식적으로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였기에 그 무게를 더해갔다고 할 수 있다(Noddings, 2010, 217).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덕은 직접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진행된 하트슨(Hartshorn)과 메이(May)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된 이후로 1950년대까지 미국 학교에서 인격교육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Noddings, 2018, 10).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딩스는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은 도덕교육 실천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는 연구와 함께 인격교육과 배려 윤리를 연결한다(Noddings, 2018, 11). 또한, 리코나(2006, 8)는 인류 역사와 전 세계에 걸친 교육의 흐름을 분석하고 교육이 두 개의 큰 목적을 토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지적으로 우수하며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여기에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Lickona, 2006, 8-9). 나딩스는 학문 분야를 넘어서는 커다란 협력을 제시하면서도 일상적인 가르침의 실천적 문제들을 강조한다(Noddings, 2018, 12). 리코나는 서구 사회의 비인격화 되어 가는 삶을 진단하면서, 인격교육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꼭 필요한 교육임을 제시한다(Lickona, 2006, 4-5). 이것은 나딩스와 리코나의 인격교육에 대한 연구가 던지는 중요한 통찰이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기술혁명의 변화는 기계화로 설명되는데 현재 인간지능에 맞먹는 인공지능이 ‘인간다움’에 도전하는 사상 초유의 혁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김명자, 2019, 26-27). 기술혁명시대는 인간의 이미지(image)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Schwab, 2016, 12-14).

따라서 인격교육이 중요한 시점임에도 문제는 인격교육의 의미가 매우 불투명하고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격교육학회(2010, 54, 66)는 인격교육이 ‘도덕’(moral/morality), ‘윤리’(ethics), ‘인성’(personality), 그리고 ‘인격’(character) 등으로 사용되며, 도덕 담론, 윤리 담론, 인성 담론, 인격 담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푸코(Foucault)의 개념적 언표들을 중심으로 의미를 밝히면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캐릭터’(character)로, 부분적으로는 ‘퍼스널리티’(personality)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관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다움’의 인격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점이다(진교훈, 2007, 70). 한국인격교육학회(2010, 65-88)는 서구의 수입된 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 담론을 통해 인격교육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271-274).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인격교육의 통합적인 담론이 요청되는 것이다.

### 3. 한국의 인격교육의 상황과 도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인격교육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혁명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임창호, 2018), 이것은 이 시대의 성장세대들을 돌보는 모든 책임적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일, 2017). 그런데 치열한 입시 경쟁, 단편적인 지식 암기, 기계적인 문제풀이, 숨 막히는 무한 경쟁, 배움의 열정 감소, 일탈과 문제 행동의 확산과 공동체의 무지, 무관심, 방관, 무책임 등은 한국 교육의 위기와 인격교육의 부재를 보여준다(차윤경 외, 2019, 6). 이계학(2001, 39)은 고학력 사회와 기술사회에 진입했지만 모든 교육을 지식 중심,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놓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격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윤길근과 김진규(2020, 307-309)는 기술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을 분석하면서 ‘사람다움, 사람됨,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상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인격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기독교 인격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통해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과 연계된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상을 포함하는 동시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지향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교육의 기회와 가능성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Ⅲ. 기술혁명시대를 위한 인격교육의 신학적 근거

기술혁명시대의 인격교육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살펴볼 때 인간 경험의 현상학적 이해와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이해를 통한 비판적 상관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 1. 기술혁명시대의 경험을 통한 인간 이해

기술혁명시대의 경험을 통한 인간 이해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관점 변화, 포스트 휴머니즘과 그 유형, 그리고 탈기계적 인간 이해이다. 첫째, 기술의 발전은 인간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 가지 공학 기술은 자발적인 진화의 과정과 포스트휴먼의 유형을 보여주는데 생명공학에 따른 복제 인간, 사이버 그 공학에 따른 기계화된 인간, 그리고 비유기물 공학에 따른 인간화된 기계이다(윤철호, 2017, 568-571).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기계가 결합한 ‘혼종적 존재’(the hybrid)가 등장한다(박일준, 2018, 26). 이것은 혼종적

존재가 되는 ‘사이보그’(cyborg)로서, 이러한 ‘사이보그화’(cyborg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Gray, 2002, 24). 이때 기술은 인간을 초월하는 시점, ‘특이점’을 제시한다(Kurzweil, 2016, 23). 또한 기술은 시장을 변화시켜서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s) 문명의 도래를 제시하며(최재봉, 2019, 15),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까지를 포함한다(최재봉, 2020, 9).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은 소비자에게로 이동한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안에 ‘사람’이 있음을 제시한다(최재봉, 2019, 12). 기술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인간에 대한 관점이 변해왔으며, 기술혁명과 시장혁명의 중심에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되는 ‘인간’이 있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 휴머니즘과 그 유형으로 인간의 모습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진화한 것이 사실이며, 휴머니즘(humanism), 트랜스 휴머니즘(trans-humanism),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으로 제시된다. 먼저, 포스트 휴머니즘은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와 포스트 모던(post-modern)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anti-humanism)의 대립을 종식하고, 더 긍정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담론이다(Braidotti, 2017, 53). 다음으로 휴머니즘은 인간주의, 인간중심주의(antropocentrism)를 표방하는 근대주의의 산물이며, 유럽의 백인을 주요 모델로 한다는 점에서 유럽 중심주의와 제국주의적 면모를 지닌다(Braidotti, 2017, 26; Davis, 1997, 23; Derrida, 1982, 115). 휴머니즘에 대해 반동으로 나온 반휴머니즘은 유럽 백인 남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상정하는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부정적 역사에 저항하면서 그의 행위를 비판한다(Braidotti, 2017, 36). 이로 인해 반휴머니즘은 다양한 담론 및 운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강점이 있지만, 인간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유를 시도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박일준, 2018, 72). 반면에 브라이도티(2017, 8-9)는 포스트휴먼이 기존의 ‘인간-인간’의 관계의 범주를 벗어나서 ‘비인간(inhuman), 반인간(anti-human), 인간-아님



(non-human)' 등을 포함하기에 인간이 '탈중심화'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관계를 극복함을 제시한다. 급진적인 트랜스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특징과 특성을 확대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이화인문과학원, 2013, 6), 이것은 기술 담론의 허세(technological bluff)가 있으며 실질적인 유효성과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Ellul, 1990, xvi.). 특히 트랜스 휴머니즘은 시장 만능주의,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도출될 수 있는 약점이 있기에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이은경, 2016, 96-101). 따라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탈기계적 인간 이해로서 기술혁명시대의 인간 경험을 통해 어떤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브린운프슨과 맥아피(Brynjolfsson & McAfee, 2016, 323)는 기술혁명의 흐름을 제2의 기계시대(second machine age)로 분류하고, '증기기관' 중심의 제1기계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중심의 제2기계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류태호(2017, 43)는 기술 지배적 사회로 보이는 심층부로 들어가면 결국 사람 지배적 사회이며,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과학과 인문학이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의 시대임을 제시한다(류태호, 2017, 43). 기술혁명시대는 기계가 인간을 점점 닮아가는 동시에 인간과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에 인간은 더욱더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기술혁명의 특징인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포함하면서도, 인격의 요소로 표현되는 지(知), 정(情), 의(意)의 관점에서 '사람다움(인간다움)'을 확보하는 것과 연계된다. 인간과 기계가 경쟁하지 않고 공생하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초지능'은 '통찰'로(최재천, 2012, 5-6), '초연결'은 '소통'으로(Harari, 2017, 187-188), '초융합'은 '공감'으로(Rifkin, 2010, 11-17; 윤철호, 2017, 1-2)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탈기계적 인간 이해를 토대로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의 자아상으로 소통적 자아, 공감적 자아, 통찰적 자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혁명시대의 기계와 인간이 경쟁하지 않고 공생하면서도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 2.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삼위일체론적 인간 이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삼위일체론적 인간 이해는 세 가지 관점으로 탐구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론의 의미와 의의, 삼위일체론의 역사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탈인습적 인간 이해를 포함한다. 첫째, 삼위일체론의 의미와 의의는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theory of the Trinity)은 역사적·성서적·신학적인 핵심 주제이며, 독특한 신적 담론이다.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이 동등하고 일치한다는 이론으로 마태복음 28: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외 다양한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다(김현숙, 2012, 61).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론은 4세기(319년)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는데, 현대 신학의 흐름을 주도하는 두 신학자는 기독교를 구별하는 특징적인 요소로 제시한다. 바르트(Barth, 1975, 297)는 삼위일체가 다른 종교의 모든 신에 대한 교리나 계시 이해로부터 기독교적인 것을 구별한다고 보며, 몰트만(Moltmann, 2017, 13)도 삼위일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한다. 김현숙(2012, 63)에 의하면, 최근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연구는 신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넘어 기독교인의 '실천적 삶'에 연결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데, 단순히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를 넘어서 인간 공동체의 삶의 규범과 해방적 관심을 이해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설명 체제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상호관련성을 거부하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 인간의 평등성에 반대하는 이념적 차별주의, 상호주관적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 배타적 폐쇄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김현숙, 2012, 77-88).

둘째, 삼위일체론의 역사와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은 전통적(교

리적) 삼위일체론과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다. 전통적(교리적) 삼위일체론에서 서방교회가 ‘세 위격의 통일성’을 강조한다면 동방교회는 ‘세 위격들 간의 한 실체’를 강조한다(Olson & Hall, 2004, 77). 서방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잇는 동시에 삼위일체론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실상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무능함과 사악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제시한다(Barth, 2003, 383). 바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동시에 입체적으로 함께 행동하며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역사신학연구회, 2008, 490-495). 이것은 기존에 교리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신학적 해석’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과 연계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김현숙, 2012, 63). 반면에 몰트만은 바르트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수용을 포함하고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과 대화적 연결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제안한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성서에 뿌리를 두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도이다(박만, 2003, 208). ‘세 위격의 사귄’(gemeinschaft)을 통한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동방교회 전통의 페리코레스시적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원한 순환적 관계로 이해한 것이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며, 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적 원형인 동시에 인간 공동체에 규범적 원리를 제공한다(Moltmann, 2017, 14-16). 김현숙(2012, 63-66)은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탈인습적 신관을 추론하는데, 관계성(relationality), 개방성(openness), 평등성(equality)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인습적 신관이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의 특징을 규명하는 동시에 인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탈인습적 인간 이해로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본질적인 인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추론된 탈인습적 신관은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Kim, 2012). 특히 삼위일체론적 인간 이해는 탈인습적 자아상을 구현하는데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관계적 자아는 계몽주의 이후 강조되어 온 개인주의적 자아개념을 극복하고, 공유적 삶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자아개념이다. 또한, 평등적 자아는 각 인간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공유적 삶을 평등하게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당위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방적 자아는 개별적 나이를 넘어서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존중하는 '상호주관성'을 획득한 자아이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적 인간 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상호주관성을 인정하는 사회생활에서의 대화를 그 필요조건으로 삼아야 함을 암시한다(김현숙, 2012, 73-77).

### 3. 창조적 인간으로서 호모 크레토스

이제 기술혁명시대의 인간 경험과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비판적 상관관계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간 경험과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대한 담론으로서 탈기계적 인간 이해와 탈인습적 인간 이해의 인격적 통섭을 포함한다.

첫째, 인간 경험의 현상학적 접근과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인간 이해를 비판적 상관관계(critical correlational method)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재구성하고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박일준, 2018, 237-238). 비판적 상관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간상, 형이상학적·초월적 성질을 통한 인간상, 상호질문과 대담으로서의 인간상, 인간 경험 때문에 재형성되는 기독교 텍스트의 인간상, 기독교 텍스트에 의해 재형성되는 인간 경험의 인간상이다(김형희, 2018).

둘째,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개인의 정신과 신체를 포함하는 인간상이 필요하다. 또한 형이상학

적·초월적 성찰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과 기계와 구별되면서도 공생과 공존을 추구하고 기술혁명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질문과 대답으로서 기술 중심과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닌 인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간 경험 때문에 재형성되는 기독교 텍스트의 인간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 패러다임은 신흥종교인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교의 출현을 예견하지만, 인간은 온 우주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와 혁신, 갱신과 변혁, 구원과 조화를 추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기독교 텍스트에 의해 재형성되는 인간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와 탈인습적 신관은 신적 공동체의 모형을 통해 인간 공동체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며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의 차원까지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기술혁명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위한 용어를 선택한다면 ‘창조적 인간’ 즉, ‘호모 크레토스’(Homo Creators)로 제시할 수 있다. ‘크레토스’는 ‘창작자’, ‘설립자’, ‘창조자’의 의미인데 이것은 기술혁명 시대에 신적인 창조성(creativity of Divinity)을 드러내는 공동체적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크레토스’는 ‘크리에이터’로 발음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으로 일반화된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의 구별을 위해 ‘크레토스’라고 표현한다. 크레토스는 ‘도구, 제작자’의 의미로 기술력과 상상력이 결합한 창의성의 의미와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창조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어 발음이 같은 ‘크레토스’(kletos)는 칼레오(kaleo)에서 파생된 것으로 ‘소명 받다’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창조적 인간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감벤(Agamben, 2008, 40-41)은 그의 저서인 ‘남겨진 시간에서 ‘크레토스’의 폭넓고 깊은 의미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그의 개념적 용어를 사용함에도 아감벤의 사상과 의미를 모두 수용하고 차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크레토스’의 의미는 창조적 인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아 개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창조적 인간의 대화 패러다임으로 ‘호모 크레토스’의 정체성은 탈기계성(post-mechanicy)과 탈인습성(post-conventionality)의 인간 이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탈기계성은 기계와 기계성의 틀을 극복하며, 탈인습성은 인습과 인습성의 틀을 넘어선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기계적 자아정체감은 소통성(communication), 공감성(sympathy), 통찰성(insight)의 원칙에 따라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탈인습적 자아정체감은 관계성(relationship), 평등성(equality), 개방성(openness)의 원칙에 따라 기독교적 자아정체감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탈기계적 기독교적 자아정체감과 탈인습적 기독교적 정체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화 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김현숙, 2012, 6, 169). 이것은 급변하는 기술혁명시대에서도 ‘사람다움(인간다움)’의 인격을 확립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실천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한다. 특히 탈기계적·탈인습적 대화 교육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제시되는 기독교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창조적 인간’으로서 ‘호모 크레토스’(Homo Creators)는 하나님·인간·자연·세상, 특별히 기술과 기계와도 바람직한 관계를 맺으며,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기술혁명시대에도 ‘사람다움’으로 표현되는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지향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 IV.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는 기독교 인격교육

기술혁명시대의 교육적 대안으로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는 기독교 인격교육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아래에서 교육목적과 목표, 교육 모형,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사와 학습자, 환경과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교육목적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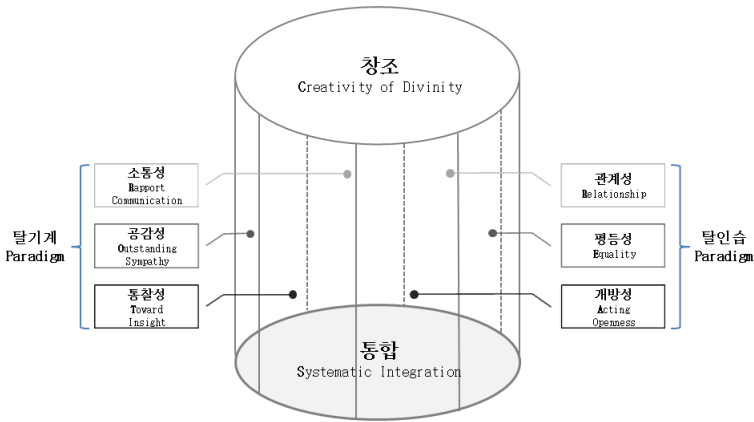
### 1) 교육목적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필요에 적응하고 중재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 인간,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 이것은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인격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탈기계적·탈인습적 패러다임의 인격적 대화를 통해 ‘탈기계성’의 자아정체감과 탈인습성의 자아정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탈기계적·탈인습적 기독교인의 자아정체감은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과 사회 변화 속에서도 개인의 종교적 지속성(continuity)과 더불어 일관성(consistency)을 견지하고, 타인과 순수한 대화적 관계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며, 세계 속에 참여하며 소명과 신앙 성장과 복음 증거의 헌신을 활성화한다(Kim, 2006). 또한,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므로, 기존지식을 활용하고 통합하여 혁신적인 새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 대통합을 위해 분야를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돕는다. 창조적인 프레임 안에서 경험을 변형할 줄 알고 지식을 통합할 줄 아는 창조적인 인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인격적인 세계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Root-Bernstein, 2007, 6, 427). 기술혁명시대의 기독교 인격교육의 목적은 창조적 인간상인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 2) 교육 목표

교육 목표는 창조적 인간, ‘호모 크레토스’의 양육을 위해서 사람다움의 기독교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더욱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크레토스’(CREATORS)의 용어로 그 특성을 살펴본다면, ‘창조성’,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 ‘통찰성’, ‘소통성’, ‘공감성’, ‘통합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부연하면, 창조적 인간, ‘호모 크레토스’ 인격교육을 위한 목표는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소명, 신앙 성장, 복음 증거와 연계된다. 즉, 창조적이고 소명적인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는 것, 창조적 통섭을 통해 탈기계적·

탈인습적 패러다임의 인격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 통합의 학제간 대화를 포함하여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호모 크레토스’의 해석 능력을 강화하고, 탈기계적·탈인습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기독교 신앙과 책임적 삶을 연결하여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및 사회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림 1] 기독교 인격교육 모형

‘호모 크레토스’로 제시된 기독교 인격교육 모형은 기술혁명 패러다임의 기술적 창의성과 탈기계적·탈인습적 패러다임의 인격적인 통섭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술 패러다임의 시스템적 사고와 인격적 교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창의적 풍토 과정과 혁신성고가 창출되도록 설정한 ‘투입-과정-결과’(IPO, Input-Process-Output) 모델(이덕로, 김태열, 2008, 443-475)과 인격적 통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홀리스틱(holistic) 교육의 통찰을 차용한 것이다. 홀리스틱 교육은 미래사회의 교육적 키워드로 유효하며(박수홍 외, 2017, 14-17), 단순화하면 ‘질문-대답’으로 제시된다(박영만,



송민영, 2003, 46). 창조적 인간상인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고 양육할 때 시스템적 사고와 상호질문과 대담으로 제시되는 인격적 대화는 중요하다. 이러한 종합적 원리 속에서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기독교 인격교육이 진행 되는 것이다.

## 2. 교육 내용

### 1) 관계적·소통적, 평등적·공감적, 개방적·통찰적 인격 대화

먼저, ‘관계적·소통적 인격 대화’의 교육은 학습자가 탈기계적이고 탈인습적인 관계와 소통을 진행하도록 도우며,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통해 함께 합의에 이르게 한다. 또한, ‘평등적·공감적 인격 대화’로 제시되는 교육은 학습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공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적·통찰적 인격 대화로 제시되는 교육은 개방적이고 통찰적인 사고를 통해 학습자들은 선입견, 편견, 특정한 신념, 왜곡된 가치관을 고수하는 대신에 개방성 가운데 공동선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돕는다. 창조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사람다움’을 이해하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한다.

### 2) 창조적 인간의 성장을 위한 대화 교육

기독교 인격교육은 창조적 대화가 일어나는 해석의 현장으로 소명적 질문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성숙은 물론 복음 증거로 연결되도록 돕는다. 이 어령(2014, 9)은 자본주의의 황혼을 언급하며 기술 자본주의·생명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때, 창조적 인간의 대화 교육을 위한 창조적 이슈가 중요한데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Freedom Writer’s Diary)의 내용과 ‘세월호’ 사건은 의미가 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는 군사적 기술 경쟁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세계대전

속에서 살았던 인물과 현실에서의 학생들의 연관성을 토대로 그룸(Groome)이 제시하고 있는 공유적 프락시스의 해석의 틀로 이해할 수 있다(김형희, 2019). 또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재해석하는 창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백은미, 2016). 기술혁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다움(사람다움)의 상실이 공존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해석의 틀로 바라보는 창조적 인간, ‘호모 크레토스’의 반응과 응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진행되는 인격적인 대화는 보다 ‘사람다움(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 3. 교육 방법

#### 1) 에듀테크를 활용한 대화 교육

교수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 간의 협동 및 협업을 지향하는 융복합교육,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성진, 2018, 578). 그런데 기계와 인간의 공생 관점에서 다양한 에듀테크(EdTech: education technology)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SAMR 모델처럼 향상과 변혁을 지향하며 대체(substitution), 보강(augmentation), 변형(modification), 재정의(redefinition)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SAMR 모델은 새로운 앱이 성능의 변화 없이 단순히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술의 진보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다양한 유형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Homes & Bialik & Charles, 2020, 8-9).

그런데 기술적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인지심리학의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창의적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내가 안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비춰주는 내면의 거울’이며 ‘생각에 대한 생각’(thinking about thinking), ‘인지에 대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로 설명된다(손리사, 2019, 6-7). 메타인지는 수단-목적 프레임의 통념을

벗어나서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임을 깨닫도록 도우며, 자기 평가 능력(monitoring)과 자기 조절 능력(control)은 중요한 요소이다(이성일, 2021, 20-21).

일례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 방법으로 창조적 인간의 자아상을 위한 학습 방법을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제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5개를 선택한 후에 그 기술들로 창조적 인간의 자아상을 구성하게 하고 발표하게 한다. 이것을 다양하고 평범한 대상에게 적용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말의 간격, 시간, 순서의 변화를 주어서 인격적 교육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간으로서의 ‘사람다움(인간다움)’의 소명적 삶을 설계하고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의 공유적 프락시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육 활동을 향상하고 변화시키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에듀테크와 더불어 교육분야 인공지능(AI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이 있다(Homes · Bialik · Charles, 2020, 8, 200). 물론,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의 윤리는 충분히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수집된 데이터와 무시할 데이터의 결정, 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적인 윤리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Homes & Bialik & Charles, 2020, 215).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 Dialogue-Based Tutoring System), 탐구학습 시스템, 에세이 자동피드백과 채점,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은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 DBTS의 예로 CIRCSIM, 오토튜터(AutoTutor), 왓슨튜터(Watson Tutor) 등이 있다(Homes & Bialik & Charles, 2020, 137).

그런데 이 중에서 오토튜터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DBTS이다. 멤피스 대학교(University of Memphis)에서 개발된 오토튜터는 교수나 학생 사이

의 대화를 가상으로 구현한 것이다(Homes & Bialik & Charles, 2020, 139). 오토튜터의 교수 모델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원리와 교실에서의 개인지도 방법으로 구성된 것이다(Homes & Bialik & Charles, 2020, 140). AIED 중에서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기독교교육 방법론으로 토마스 그룹의 공유적 프락시스를 활용하여 기독교 인격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눅 24:13-34)를 활용하는 것이다(Groome, 1993, 300-326). 또한, 오토튜터의 교수 모델을 활용하여,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의 공유적 프락시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식적 앎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실천적 삶의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다(김형희, 2019).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적 프락시스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토튜터와 토마스 그룹의 공유적 프락시스를 활용한 것이다.

〈표 1〉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을 활용한 공유적 프락시스

구분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을 활용한 공유적 프락시스	
①	오토튜터	〈주질문〉 예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있고,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학습자	두 사람은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함께 걷고 있어요.
	오토튜터	〈추가 정보 요구〉 내 생각에는 당신이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학습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요. '죽음에 관한 대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 같아요.
②	오토튜터	〈힌트〉 두 사람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학습자	제자들에 의하면 예수는 선지자로 말할 거 같아요.
③	오토튜터	두 제자를 만난 한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학습자	성경의 내용은 뭐죠?
	오토튜터	〈답〉 제가 설명해볼게요. 그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매우 솔직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분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을 활용한 공유적 프락시스	
④	오토튜터	〈힌트〉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학습자	뭔가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토튜터	〈짧은 피드백〉 잘 했어요.
	오토튜터	〈힌트〉 두 제자는 만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학습자	예수라고 느끼고 있어요.
⑤	오토튜터	〈확인 질문〉 이걸 해보죠.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만화 인물은 학습자에게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손동작을 한다)
	학습자	반대 방향이요.
	오토튜터	〈힌트〉 반대 방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학습자	예루살렘이요.
	오토튜터	〈짧은 피드백〉 맞아요.
	오토튜터	〈완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나요?
	학습자	예수를 만나는 지점이 유턴(U-turn)의 지점이에요.
	오토튜터	〈짧은 피드백〉 맞아요. 〈추가 질문〉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나요?
	학습자	저도 유턴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이것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생략)

#### 4. 교사와 학습자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에서 교사는 ‘탐구자’, ‘개척자’, ‘해석자’로 제시할 수 있다. 탐구자로서의 교사는 지식의 제반 분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통합을 시도하며 중요한 단계에서 지식 활동을 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연관성을 인지하고 파악한다(Root-Bernstein, 2007, 425). 또한 교사는 개척자로서 더욱 광범위한 지식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며 탐구 활동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개척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에 접근하려고 시도한다(Root-Bernstein, 2007, 426). 그리고 해석자로서의 교사는 감각과 이성, 감정과 분석, 가장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력을 통합하고자 분투하며(Root-Bernstein, 2007, 429), 학습자와 함께 해석을 통해 연결된 존재이다(Seymour & Miller, 1982, 187-222).

반면에 학습자는 ‘창작자’, ‘개척자’, ‘해석자’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는 창작자로서 지식의 제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실현한다. 또한, 개척자로서 학습자는 기존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 활동 활동에 참여하고 도전하여 통합적인 사고를 이루어낸다. 그리고 학습자는 해석자로서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습자는 기술혁명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적 인간, ‘호모 크레토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예수는 중요한 롤 모델로 설정되는데 배우는 학습자를 강조하고(Groome, 2015, 75), 동시에 자립적 태도와 대화적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제시한다(Pazmino, 200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는 스스로 관계적·소통적 인간, 평등적·공감적 인간, 개방적·통찰적 인간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며, ‘인간다움(사람다움)’을 실현해 나간다.

## 5. 교육 환경과 평가

### 1) 교육 환경

기술혁명시대는 기술 패러다임의 관성을 따라 움직이고 교육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기에 세 가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분법이 아닌 통합적 사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패러다임과 펜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적인 관점은 더욱 절실하고 구체적으로 요구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인 디지로그(Digilog)의 형태가 보편화한 것이다 (이어령, 2006, 17). 이러한 교육 환경을 인식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술적 교육적 환경에 대한 투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셋째, 인격적 대화 가능성이 있는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다. 인격교육은 특정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앎과 실천적 삶의 형태, 가치, 소명에 대한 요소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환경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교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원까지 그 의미와 가치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 2) 평가

교육 평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의 장단점을 규명하는 동시에 가감해야 하는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분에서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 학습자 자신의 평가이다. 소명, 신앙 성장, 복음 증거의 목표를 토대로 소명적 질문, 탈기계적·탈인습적 패러다임의 인격적 대화,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을 평가한다. 일례로, 각각의 성과를 0부터 10까지 계량화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글로 써 보는 것이다. 둘째, 또래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 방법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창조적 대화 이슈를 분별하고 찾아낸 후에 인격적 대화를 통해 해석의 공동체의 모습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일례로, 각각의 성과를 0부터 10까지 계량화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적·소통적인 인격적 대화, 평등적·공감적인 인격적 대화, 개방적·통찰적 인격적 대화가 실현될 수 있는 해석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셋째, 창조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교육 목표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및 사회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슈를 발견하고 해석 역량을 강화하며, 탈기계적·탈인습적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토대로 기독교 신앙과 책임적 삶을 연결해 보는 것이다. 각각의 성과를 0부터 10까지 계량화하고, 구체적인 모순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대

화를 통해 창조적인 문제해결이 진행되었는가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다움'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수명, 건강, 생계, 직업, 재산, 교육, 여가생활, 행복, 그리고 자유, 평화 등의 문제이다. 이들 항목은 통계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김명자, 2019, 13).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기술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관관계와 비인격화를 조명하면서 창조적 인간상을 지향하는 기독교 인격교육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기술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창조적 인간상을 제시한 점, 둘째 구체적이면서도 체계화된 모형을 제시한 점, 셋째 기독교 인격교육을 통해 개인, 교회 공동체, 기독교대학,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일반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반면에 특정 대상에 대한 경험적·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모형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 다양한 나이와 대상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점은 한계이다.

차가운 기계문명 속에서도 따스한 심장을 가진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더 나은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인격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기술혁명시대는 인류 공동체에 짐(burden)이 아니라 자유가 되도록 생명에 대한 사랑과 상생을 실천하는 창조적 인간의 겸손한 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기독교 인격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과 사례와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도일 (2017). 인공지능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미래 마인드와 책임적 리더십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1, 75-100.
- [Kim, D. I. (2017). Coping challenges with future minds and responsible/authentic leadership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1, 75-100]
- 김명자 (2019).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서울: 까치.
- [Kim, M. J. (2019). *Reading world history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Seoul: Kachi.]
- 김성동 (2018). **4차 산업혁명과 인간**. 서울: 연암서가.
- [Kim, S. D. (2018).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s*. Seoul: Yeonamseoga.]
- 김정준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 47-88.
- [Kim, J. J. (2018).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perspective to educational pastoral care: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5, 47-88.]
- 김현숙 (2012).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H. S. (2012). *Postconventionality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효숙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논총**, 58, 113-138.
- [Kim, H. S. (2018). Educational ministr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8, 113-138.]
- 김형희 (2019). 다음세대의 공적 신앙과 공적 책임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그룹의 Shared praxis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3, 177-202.
- [Kim, H. H. (2019). Christian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public faith and public responsibility: Focusing on shared praxis in Thomas H. Groome.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63, 177-202.]
- 김형희 (2018). 공적 신앙과 기독교적 책임으로서의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David Tracy의 비

관적 상관관계 방법을 중심으로. *생명문화연구*, 7, 1-21.

[Kim, H. H. (2018). Public faith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adolescent life respect education: Focusing on David Tracy's critical correlation method. *Journal of Culture Forlife*, 7, 1-21.]

류태호 (2017).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Yu, T. H.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is hope*. Seoul: Kyunghee University Communication & Press.]

박만 (2003). **현대 삼위일체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ark, M. (2003). *Contemporary trinitarian studie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박수홍 외 9인(편)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시스템 디자인: 새로운 교육공동체 창조를 향한 여정**. 부산: 아이엠.

[Park, S. H. (Eds.). (2017). *Educational system design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ey for creating new educational community*. Busan: Iamcoop.]

박영만 · 송민영 (2003). **통합교육과정과 전인교육: 21세기 교육의 홀리스틱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Park, Y. M., & Song, M. Y. (2003). *An integrated curriculum and the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A holistic educational paradigm for th 21<sup>st</sup> century*. Seoul: Hakjisa.]

박일준 (2018). **인공지능시대, 인간을 묻다**. 서울: 동연.

[Park, I. J. (2018). *Questioning human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oul: Dongyun.]

백은미 (2016). 고통의 종교적 의미 형성을 위한 전환학습. *신학사상*, 174, 1-41.

[Paik, E. M. (2016). Transformative learning for religious meaning-making of suffering. *Theological Thought*, 174, 1-41.]

양성진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9, 567-597.

[Yang, S. J. (2018).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ology and Praxis*, 59, 567-597.]

- 역사신학연구회 (2008). **삼위일체론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Historical Theology Research Society. (2008). *History of the Trinit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오인탁 (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 417-445.
- [Oh, I. T.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asks of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2, 417-445.]
- 유석상 외 17인(편) (2018).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서울: 종문화사.  
[Yoo, S. S. (Eds.). (2018). *What is humanity?*. Seoul: Jongmunhwasa.]
- 윤길근·김진규 (2020). **전인교육의 답론**. 서울: 신정.
- [Yoon, G. G. & Kim, J. G. (2020). *Discourse on holistic education*. Seoul: Shinjeong.]
- 윤철호 (2017). **인간: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관한 학제간 대화**. 서울: 새물결플러스.  
[Youn, C. H. (2017). *Human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on human nature and destiny*. Seoul: Holywaveplus.]
- 손리사 (2019). **메타인지 학습법**. 파주. 21세기북스.  
[Son, L. (2019). *How to learn metacognition*. Paju: Book21.]
- 이계학·서명석·김재영·임병덕 (2001). **인격 확립의 초월성**. 화성: 창계.  
[Lee, K. H., Seo, M. S., Kim, J. Y., & Im, B. D. (2001). *Transcendence of character establishment*. Hwaseong: Chungkye.]
- 이덕로·김태열 (2008). 직무특성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선행적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7(3), 443-475.  
[Lee D. R., & Kim, T. Y. (2008). Job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reativity: The mediating effects of proactive behaviors. *Korean Management Review*, 37(3), 443-475.]
- 이성일 (2021). **메타인지 수업**. 서울: 경향BP.  
[Lee, S. I. (2021). *Metacognition class*. Seoul: KyunghyangBP.]
- 이어령 (2014). **생명이 자본이다**. 서울: 마로니에북스.  
[Lee, E. Y. (2014). *The vita capitalism*. Seoul: Maroniebooks.]
- 이어령 (2006). **디지로그**. 서울: 생각의나무.  
[Lee, E. Y. (2006). *Digilog*. Seoul: Itreebook.]
- 이영주 (2021). **뉴노멀 시대의 이리닝과 원격교육**. 서울: 학지사.

- [Lee, Y. J. (2021). *E-learning and distance education in the new normal era*. Seoul: Hakjisa.]
- 이은경 (2016).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위한 교육**. 서울: 길밖의길.
- [Lee, E. K. (2016). *People to play with me, stick here: Education for the symbiosi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Seoul: Kpm.]
- 이화인문과학원 (2013).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Ewha Institute For the Humnities. (2013). *Humans and posthumanism*. Seoul: Ewah Womans University Press.]
- 임창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56, 11-44.
- [Lim, C. H. (2018). Rethink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11-44.]
- 진교훈 외 20인(편) (2007).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Chin, K. H. (Eds.). (2007). *The person: The meaning of person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차윤경 외 13인(편) (2014). **융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Cha, Y. K. (Eds.). (2014). *Theory and practice of yungbokhap education*. Seoul: Hakjisa.]
- 차윤경 외 19인(편) (2019). **융복합 교육론**. 서울: 학지사.
- [Cha, Y. K. (Eds.). (2019). *Yungbokhap education and school reform*. Seoul: Hakjisa.]
- 최재봉 (2020). **Change 9**. 서울: 쌤앤파커스.
- [Choi, J. B. (2020). *Change 9*. Seoul: Samnparkers.]
- 최재봉 (2019). **포노 사피엔스**. 서울: 쌤앤파커스.
- [Choi, J. B. (2019). *Phono sapiens*. Seoul: Samnparkers.]
- 최재천 (2012). **통찰**. 서울: 이음.
- [Choi, J. C. (2012). *Insight*. Seoul: Eum.]
- 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인격과 교육 사이의 파열음**. 파주: 양서원.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Moral Character Education. (2010). *The rupture between personality and education*. Paju: Yangseowon.]

- Agamben, G. (2008). **납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 김승훈 역. 서울: 코나투스. (원저 2000 출판)
- [Agamben, C. (2008). *Il tempo che resta: Un commento alla lettera ai romani* (S. H. Kim, Trans). Seoul: Conatus.(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Barth, K. (1975). *Church dogmatics, I/1*. (G. W. Bromiley, & T. F. Torrance, Trans.). Edinburgh: T. and T. Clark.(Original work published 1935).
- Barth, K. (2003). **교회교의학 I/1**. 박순경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35 출판)
- [Barth, K. (2003). *Church dogmatics, I/1* (S. K. Park,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Original work published 1935).]
-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 Braidotti, R. (2017).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파주: 아카넷. (원저 2013 출판)
- [Braidotti, R. (2017). *The posthuman* (K. R. Lee, Trans.). Paju: Acanet.(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Brynjolfsson, E. & McAfee, A. (2016). **제2의 기계시대**. 이한음 역. 서울: 청림출판. (원저 2014 출판)
- [Brynjolfsson, E. & McAfee, A. (2016). *The second machine age* (H. E. Lee, Trans.). Seoul: Chunggrim.(Original work published 2014).]
- Davies, T. (1997). *Humanism*. London: Routledge.
- Derrida, J. (1984). *Margins of philosophy* (B. Alan, Tr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2).
- Ellul, J. (1990). *The technological bluff* (G. W. Bromily, Trans), Michigan: Eerdmans.(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Gray, C. H. (2002). *Cyborg citize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Groome, T. H. (2015).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조영관·김경이·임숙희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원저 2011 출판)
- [Groome, T. H. (2015). *Will there be faith?* (Y. K. Cho, K. I. Kim & S. H. Lim, Trans.). Seoul: Catholic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Harari, Y. N. (2017).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서울: 김영사. (원저 2016 출판)
- [Harari, Y. N. (2017).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M. J. Kim, Trans.). Seoul: Gimmyoung.(Original work published 2016).]

- Holmes, W. & Bialik, M. & Fadel, C. (2020).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가르침과 배움의 함의**. 정재영·이선복 역. 서울: 피와이메이트. (원저 2019 출판)
- [Holmes, W. & Bialik, M. & Fadel, C.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 learning* (J. Y. Jung & S. B. Lee, Trans.). Seoul: Pymate.(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Kim, H. S. (2012).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in a Trinitarian perspective. *Religious Education, 107(3)*, 247-261.
- Kurzweil, R. (2016). **마음의 탄생: 알파고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훔쳤는가?**. 윤영삼 역. 서울: 크레센도. (원저 2012 출판)
- [Kurzweil, R. (2016). *How to create a Mind* (Y. S. Yoon, Trans.). Seoul: Crescendo.(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Lickona, T. (2006). **인격교육의 실제**. 유병열·서강식·김태훈·김항인 역. 파주: 양서원. (원저 2004 출판)
- [Lickona, T. (2006). *Character matters* (B. Y. Yu, K. S. Seo, T. H. Kim, & H. I. Kim, Trans.). Paju: Yangseowon.(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Moltmann, J. (2017).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1 출판).
- [Moltmann, J. (2017).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Beiträge zur trinitarischen theologie* (S. G. Lee,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Noddings, N. (2018). **배려와 도덕교육**. 고미숙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2002 출판)
- [Noddings, N. (2018). *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M. S. Ko, Trans.). Seoul: Kyoyookbook.(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Noddings, N. (2010). **넬 나딩스의 교육철학**. 박찬영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저 2007 출판).
- [Noddings, N. (2010). *Philosophy of education* (C. Y. Park, Trans.). Seoul: Academ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Olson, R. E. & Hall, C. A. (2004). **삼위일체**. 이세형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2 출판)
- [Olson, R. E. & Hall, C. A. (2004). *The trinity* (S. H. Lee,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Original work published 2002).]

Pazmino, R. W. (2003). The nature of God from an adolescent perspective: biblical, developmental, and theological Insights. *The Journal of Youth Ministry, 1*(2), 35-50.

Rifkin, J.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원저 2009 출판)

[Rifkin, J. (2010). *The empathic civilization* (K. N. Lee, Trans.). Seoul: Minumsa.(Original work published 2009).]

Root-Bernstein, R. & Root-Bernstein, M. (2007).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에코의서재. (원저 1999 출판)

[Root-Bernstein, R. & Root-Bernstein, M. (2007). *Spark of genius* (J. S. Park, Trans.). Seoul: Eco's library.(Original work published 1999).]

Schwab, K.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메가스터디. (원저 2016 출판)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 J. Song, Trans.). Seoul: Megastudy.(Original work published 2016).]

Seymour, J. L. & Miller, D. E. (1982).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Aiming for Homo Creators**

Hyung Hee Kim  
Adjunct Professor,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depersonalization in the flow of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to present a Christian SARAMDAUM education that aims for a new human image. It represents the Christian SARAMDAUM education that adapts to, mediates, and offers alternatives to the technological and human evolutionary flow of the machine age. The purpose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is to aim for 'Homo Creators', creative human beings presented as a new human image in the age of technological revolution. The educational goal is to nurture creative human beings through creative interpretation, creative integration between disciplines, and personal dialogue in the post-mechanical/post-conventional paradigm.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is a conversation with the SARAMDAUM that consiliences the characteristics of post-machine and post-convention. The educational method utilizes Edu-Tech and AIED(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to realize systemic thinking and SARAMDAUM dialogue of technology.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teachers and learner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evaluation is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Christian education, the identity of human beings in the era of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has been identified, and research on the creative image of the human being is newly attempted,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SARAMDAUM education aimed at this is presented. This can be said to be a Christian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while accommodating the era of technological



revolution.

《 **Keywords** 》

Technological Revolution Era, Creative Human Image,  
Christian SARAMDAUM Education, Trinity, Homo Creators

- 투고접수일 : 2022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29일